

인행인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사장 이 강 희

춘추시대 유가(儒家)의 창시자인 공자는 늙어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공자세가」에 의하면 공자는 만년에 이르러서야 「역경(易經)」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역경」은 아주 읽기 힘든 고서(古書)였지만 그는 오히려 재미를 붙이고 그 뜻을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꾸준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공자는 「역경」의 뜻을 터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역경」의 뜻을 설명한 10편의 글 즉, 「십익」을 써내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경」을 설 새없이 뒤지다보니

책을 묶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때 말하는 끈은 실로 만든 끈이 아니라 가죽으로 꿰맨 끈이었습니다.

또한 전한(前漢) 때, 재상이 되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영화를 누린 광형(匡衡)은 젊었을 때 무척 고생을 하고 성공한 위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틈만 있으면 공부를 하였으나, 말할 수 없이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책을 살 돈이 없어서 품팔이를 해 가면서 풀푼이 모은 돈으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품팔이를 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으니 낮에 한가히 책을 읽을 수는 없고 밤에 책을 보아야 했는데 등불을 켤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이웃집의 벽에 몰래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에 따라 책장을 넘기면서 독서를 계속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을 각각 '위편삼절(韋編三絕)', '착벽인광(鑿壁引光)'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말년에 건강과 어눌함을 핑계삼아 학문을 게을리 하고 명리(名利)만 좇아 다녔다면 후세 사람들에게 회자(膾炙)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에 끝까지 읽어 본 책이 국어책과 몇 권의 소설책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니다.

또한 광형이 남의 벽을 뚫은 일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운신(運身)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만 탓하고 현실을 외면해 버렸다면 사서(史書)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항인들도 항상 책을 읽어서 책 속에 담겨진 놀라운 가치들을 발견하여 입신(立身)하길 바랍니다.

인항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첫째로 인항고등학교 교문을 들어설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었습니까? 아마도 학업에 열중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학과 졸업을 앞둔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서 수정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단행하고 묵묵히 결과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교문을 들어설 때 설레는 첫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사랑도 첫사랑이 소중하고 열매도 첫열매가 빛납니다.

둘째로 내가 남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은 요리를 특별하게 잘해서 요리를 전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만화를 좋아하고 잘 그린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때때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까?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 교훈 중의 하나가 봉사(奉仕)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외면과 괘시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보낼 수 있는 인항인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넷째로 부모님을 정성껏 섬겼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주저할 것입니다. 소학에서는 혼정신성(昏定晨省)이라는 성어를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물어서는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 부모님의 안색을 살핀다.' 라는 이 성어가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침저녁으로 부모님을 살피고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의 출발입니다.

끝으로 인항인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